

컨벤션시장 중추 역할...광주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전시장 70% 가동 지난해 첫 흑자
주관 전시회 수출 상담 8억 달러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상승

호남의 마이스(MICE)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신환섭·이하 센터)가 개관 11년째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3000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홀을 비롯한 19개 중소회의실을 갖춘 제2센터를 완공한 뒤 국내 최고의 센터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등 호남의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전시장 가동률 70% 상회=김대중컨벤션센터는 국내외 상품·기술·문화교류를 위해 광주시가 100% 출자한 호남권 유일의 지방공공 전시컨벤션센터다.

직원 수는 사장을 포함해 정규직원 39명, 기간제근로자 73명 등 112여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2005년 9월6일 문을 연 후 올해로 개관 11년째를 맞았다. 매년 전시회와 이벤트 70여회, 국제회의의 30여건을 비롯, 각

미스(MICE)산업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

종 크고 작은 회의의 1500여건을 유치 및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전시장 가동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어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전국 '탑(TOP) 3' 전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센터는 광주시의 전략산업과 관련 있는 9개 주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장 회의실 임대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1억 4200만원의 흑자경영에 이어 올해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치개선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정 공사공단 14개 기관중 4위로 '나'등급을 획득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전경.

이 때문에 최근 앞다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울산·수원·오송·평택·전주 등 다른 지자체들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는 센터가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호남 유일의 전시컨벤션시설로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광주 경제 활성화·도시 브랜드 국제화 기여=센터 전시회의 국제화와 대형화가 두드러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광주' 도시 브랜드 국제화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규 개최된 국제부리산업전시회를 비롯한 센터가 주관하는 9개 전시회 역시 고도화를 통해 해외업체 340개사, 해외바이어 1060명을 유치해 수출 상담액 8억66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지역업체의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어 지난해만 국제회의와 각종 중소기업의 1350여건을 개최해 '광주' 도시 브랜드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6월 극심했던 메르스 여파에도 147만명을 집계해 전시컨벤션센터의 성공 모델이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간 중 전시장은 펜싱장으로, 다목적홀 및 컨벤션홀은 국내외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메인 미디어센터와 프레스센터로 활용돼 국내외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컨벤션 시장 현황=통계에 따르면 전시회 및 국제회의, 학술대회 등 MICE 참가자 1인당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보다 1.7배가 높다. MICE산업은 그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광주지역도 최근들어 해마다 마이스(MICE) 관련 행사가 100여건 개최되고



제2 센터.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수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MICE산업은 서울 잠실운동장 전시장, 경기도 컨텍스 제3전시장, 대전시 다목적전시장, 전북도, 수원시, 평택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건립을 추진중으로 무한 경쟁 체제에 진입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 경영전략'을 마련, 지역 주요사업과 연계한 MICE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무기반 구축,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공기업 등을 기반으로 갈수록 치열해 지는 MICE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환섭 사장은 "올해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경영혁신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흑자경영의 기초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콘텐츠 최신 흐름 'ACE Fair'에 총집합

〈아시아 문화콘텐츠 대축제〉



22~25일 김대중센터

중국·인도 등 37개국 참여

가상현실·모바일게임 체험

인기 BJ 생방송·웹툰 전시도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16 광주 ACE Fair'가 최신 트렌드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KOTRA,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37개국 430개사가 참여해 690부스가 개설된다. 해외에서는 중국 광저우애니메이션협회, 튀니

지 CREATEC, 인도 MEAI 등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공동관 형태로 대거 참여한다.

광주 지역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동관에서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광주시의 우수 콘텐츠 기업 25개사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광주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11개사와 창투사가 참여하는 '광주 콘텐츠 투자 피칭 및 상담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유력 바이어 200여명이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참가업체와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최대 공영방송 애니메이션 채널 'CCTV Animation Channel', 중국 검색 포털 'SOHU.com', 중국 글로벌 콘텐츠 그룹 'IIE STAR', 중국 대표 교육 채널 'CCTV DREAM CHANNEL' 등 중국 빅(big)바이어들과, 유럽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 'Bigpoint GmbH' 등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KBS N, MBC+ Media, SBS Medianet, CJ E&M 등 주요 방송사와 최대 모바일 통신사인 SK텔레콤, '뽀로로' 제작사 오몬, '두다다콩' 제작사 아이스크림스튜디오 등 캐릭터·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게임커뮤니티 분야 대표기업 헝그리업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참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올해 새로 꾸민 게임&VR 체험관은 국내 최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헝그리업'과 한국중소ICT교류협회 소속 모바일 게임 제작사 등이 참가하여 신작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동신대학교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모션테크놀로지, 메가마인드 등도 VR/AR 콘텐츠 및 신기술 체험부스를 마련한다.

전시장에 설치된 스타 BJ 스튜디오에서는 아프리카TV 대표 MC BJ 최군, 게임부문 최고스타인 BJ 로이조와 대정령이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와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웹툰&만화특별전' 뽀로로, 라바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퍼레이드 & 포토존', '코스프레 페스티벌', '키덜트&보드게임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다양한 세미나도 동시 개최된다. '미래의 아이콘, 콘텐츠'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6 ICON Forum 특강'에는 구글 코리아 김태원 글로벌비즈니스 상무가 '글로벌 콘텐츠산업 동향 및 창의적 콘텐츠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관 '저작권 세미나' 등 다양한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신환섭 사장은 "올해 광주 ACE Fair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로 품목을 구성하였고, 그 어느해 보다 구매력 높은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판로 및 비즈니스 교류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VR, 1인 미디어, 웹툰, 모바일게임, 키덜트, 보드게임 등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형 국제회의 유치로 수익성 높일 것"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최고 수준인데다, 국제전시 연합 인증 획득 등 국내외 경쟁력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올해로 개관 11년째를 맞는 센터가 명실공히 호남의 랜드마크로

지난해 6월 취임해 취임 15개월째를 맞는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포부는 단정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스(MICE)산업 선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수익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 사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센터는 앞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한 글로벌 광주의 이미지 제고 향상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형 행사 유치, 브랜드 전시회 개발 및 육성, 국제인증 전시회 6건 획득, 국제회의의 30건, 학술회의의 40건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또한, 새로운 10년 도약을 위해 사업 중심의 조직체계, 친환경 전시장 조성, 선진 고객시스템, 경영정보 구축 등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센터 전시장 가동률이 국내

그러면서 신 사장은 "올해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부 지자체들의 뒤늦은 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마이스업계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다"고 전망한 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국제회의와 정책 전시회 유치 등을 통한 전시회 국제화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설전시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즐거움을 만들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